

## 제4차(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 11. 25.(수) 11:00	장소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
참여자	위원장	조병민	
	위원	한상욱, 김미애, 권정휘, 여홍명, 이수희	
	기록자	정희정	

보고번호	안건명	보고내용	구분
제1호	2020년 주요사업	가결	
제2호	2020년 3차 추경보고	가결	
제3호	2020년 4분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가결	
제4호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보고	가결	
제5호	논의사항 및 정책건의	가결	

※ 첨부 : 회의록

위와 같이 보고받았음을 확인 날인(서명) 함.

2020년 11월 25일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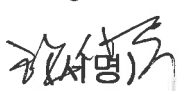
위원장 조 병 민



위원 이 수 희



위원 한 상 욱



위원 권 정 휘



위원 김 미 애



위원 여 홍 명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11시
- 장 소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2
- 참석위원 : 총6명 참석
  - 위원(6명) : 조병민 위원장, 한상욱 위원, 이수희 위원, 권정휘 위원, 김미애 위원  
여흥명 위원
  - 간사(1명) : 김아영 팀장
- 개최
  - 조병민 위원장이 2020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성원보고
  - 김아영 팀장이 성원보고하다.
    - 위원 총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 성립함을 보고하다.
- 신규위원 보고
  - 국제로타리3600지구 수지로타리클럽 회장 이경영 위원이 신규위촉됨을 보고하다.
- 보고사항에 대한 건
  - 김아영 팀장이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다.
  - 제1호 의안 : 2020년 주요사업보고
    - 김아영 팀장이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사업 보고하다.
  - 제2호 의안 : 2020년 3차 추경보고
    - 김아영 팀장이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추경 보고하다.
  - 제3호 의안 : 2020년 4분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 김아영 팀장이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4분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하다.

■ 제4호 의안 :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보고

- 김아영 팀장이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하다.

■ 제5호 의안 : 논의사항 및 정책건의

- 2020년 주요사업 및 3차 추경, 2020년 4분기 결산 및 사업실적,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논의사항 및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다.

■ 질의사안

- 이수희 위원 : 많은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만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코로나가 지속 및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전환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더욱 노력하는 중이다.

- 조병민 위원장 :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참여율은 어떤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처인구 등 거리가 먼 이용자가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할 때는 지역적 거리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나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가정 등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적인 소통 등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많이 좋아해주셨고 특히 중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7080 음악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실시간으로 사연을 받고 신청곡을 불러드렸는데,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했던 한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고 살아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도 못했는데 미안한 마음을 풀어내기도 하면서 행복했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서 확장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가족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좋고 오히려 반응이 좋은 것 같다.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도 처음에는 체험키트를 배부하였는데, 키트만 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키트를 활용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점검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특히 행복 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4명~8명 요리교육실에 모여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김치만들기는 70여가족이 한번에 접속하여 동시에 김치를

만들 수 있었다고 답변하다.

- 한상욱 위원 :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홍보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이용자분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지를 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았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지역 카페나 당근마켓 지역생활 게시판, 맘카페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어플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신규 대상자가 늘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Zoom을 활용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Zoom이나 Webex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했으나 100명 단위는 소통 및 진행이 조금 어려웠다. 유튜브 스트리밍은 채팅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원활한 점이 있어 대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유튜브로 진행하고 소규모로 진행할 때에는 Webex를 사용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홍보는 무작위로 하는지 타깃을 놓고 홍보하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한 약 2천4백여명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월별 프로그램 중 5가지 정도를 선별하여 소식지를 보내면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약 위기나 사례관리, 상담 관련 등 특별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 리스트와 대기자 리스트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명단 대상자에게 SMS로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참여했던 대상자들은 계속 찾아오는데 소외된 대상자들은 참여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소외된 분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코로나가 5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단계마다 공공시설 관리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단계에서 지침에 따르면 공연 같은 경우 공연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마스크 착용하면 좌석 확보가 30%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한상욱 위원 : 단계 변동이 있을 시 정책적으로 관리 지침이 바로 전달되고 센터에서도 이미 잘 해오고 있지만, 1단계 관리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가 2단계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면으로 준비했던 부분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도 매뉴얼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지침을 인지하고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주최측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매뉴얼로 되어있으면 빨리 적용하기 쉽다는 의견을 표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을 시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글로벌 페스티벌 같은 경우 아예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을 했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반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체에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대면과 비대면으로 비교했을 때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기본적으로 강사료나 공연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유튜브로 송

출할때 송출비가 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따로 유튜브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실무진이 직접 진행했을 때 방송사고가 있었다. 업체의 안전한 장비 시스템이 필요하다. 100명이상 송출할 때는 유튜브로 송출하고 소규모로 진행할 때는 저렴한 Zoom이나 Webex로 진행을 한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을 것 같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때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다고 답변하다.
- 권정휘 위원 : 재단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끊겨서 나오는 바람에 방송사고가 많이 난다. 먼저 기본 장비를 구비한 다음 외부 전문 업체를 불러서 보강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 송출은 쉽지 않다. 이 코로나가 꽤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 장비는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 한상욱 위원 :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장비는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글로벌 페스티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올해 외국인 복지센터 개소하여 변화가 생겼다. 물리적으로 수지구와 처인구에 있지만 다문화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쪽 센터에서 다르게 진행할 것은 다르게 진행하되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공통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 이수희 위원 : 올해 외국인복지센터가 개소하여 센터입장에서 함께할 수 있어 참 좋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외국인 주민을 모집하는 것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다양한 국적 및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주민들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한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표하다.

- 조병민 위원장 : 온라인 프로그램 많아지면서 현재 인력이 온라인에 최적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배워서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방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없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없다고 답변하다.
- 한상욱 위원 :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원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전문 아나운서가 하는 것보다 일반시민과 비슷한 직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니 더 재미가 있고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물론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 이수희 위원 : 올해 센터건물이 6년차이다 보니 사고도 많고 수리할 곳도 많이 생겼다. 특히 지하층에 습기가 많다보니 감지기 및 센서의 오작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았다. 용인시종합가족센터의 안전관리사 1명이 자동제어기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동제어기능의 오류가 많아 안정성을 믿기 어렵고 타기관도 자동제어에 문제가 있어 긴급 출동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한다.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규모도 크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사가 연차등으로 부재시 직원들은 기계실을 함부로 만지기 어렵다. 또한 토요일은 안전관리사가 근무하지 않는다. 센터 오픈부터 클로징까지는 안전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안전관리사가 연차일 때 인계자가 없고, 오작동으로 인해 긴급 출동하는 부분 등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또한 도서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도서관 시설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예산 보강이 된다면 안전관리사가 한명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다.

- 한상욱 위원 : 안전관리사 1명이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만, 조직적인 측면으로 봤을때는 과연 2명이 해야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자동화 설비로 다 되어있고 문제가 있을 때 외부 전문업체를 부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결정을 혼자서만 해야 하고, 기계시설을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총원을 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지는 않을까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교대근무로 운영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가장 많은 토요일에 안전관리사가 출근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시 신속대응이 어렵다고 답변하다.
- 조병민 위원장 : 파트타임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지 문의하다.
- 이수희 위원 : 파트타임으로 안전관리사를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다.
- 권정휘 위원 : 은퇴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다.
- 한상욱 위원 : 이런 건물수준이라면 일반인에게 어려운건 맞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난이도가 낮은편이다. 센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작동시 습기나 누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점검을 통해 원인 해결하고, 권정휘 위원님 말씀대로 은퇴하신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다.
- 이수희 위원 : 위원장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다.
- 한상욱 위원 : 지하부분은 도서관에서 관리해도 좋을 것 같다. 도서관 인력을 확인해보겠다는 의견을 표하다.
- 권정휘 위원 : 직접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재밌게 하려고 해도 발음상의 문제 등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달력이 좋고 재능이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직원역량교육이 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직원들이 영상제작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년 직원 역량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유료교육을 받고 싶은 직원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로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에 홍보TF팀이 구성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여흥명 위원 : 주위 이용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우러 많이 가는데 강사님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 가뜰이나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못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 대면과 비대면은 진행이 다르다. 강사 섭외 시 강의시연을 먼저 하고 잘하시는 분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용자들도 시간 투자해서 힘들게 수업 받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이 많다. 센터에서는 많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서 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강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표하다.
- 이수희 위원 : 강사들도 낮설고 방송 연결도 한계가 있다. 끊기기도 하고 방송 송출할 때 자료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특히 평소에 대면으로만 수업을 해온 강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센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수행착오가 많았다.
- 조병민 위원장 : 온라인 강의나 프로그램 할 때 PD역할을 하는 분이 꼭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꼭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다.
- 이수희 위원 :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을 섭외한 적도 있다.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약100명의 실적을 낼 수 있었고 반응도 아주 좋았다. 기존에 대면으로만 수업하셨던 분들도 보강 교육을 통해 질을 보완 하겠다고 답변하다.

이하 특별한 질의 없이 김아영 팀장이 모든 보고내용에 동의 여부 및 제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출석 위원 전원 동의하여 원안 수용되다.

#### ○ 종결 및 마무리

조병민 위원장이 폐회 인사와 함께 박수로 2020년 4분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